

第11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11月7日(水) 午前 11時04分 開式

第116回 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業務擔當主事 張慶洙)

(11時04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제1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경애하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개최식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盧張鐸 副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잊그제 메마른 대지를 늦가을 단비가 촉촉이 적셔주더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겨울의 문턱에 다가섰음을 알리는 입동으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풍요로운 가을이 더욱 소중하고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과 설렘 속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새아침을 맞이한 것이 바로 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이제는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2002년의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 의정보고회, 계속되는 임시회·정례회와 같은 의회 의정활동과 연말행사 등으로 이때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며 더구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600년 고도의 서울을 그대로 간직한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종묘·창덕궁·비원 같은 고궁과 전통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리인 인사동길은 2년전 영국여왕의

방문으로 더욱 유명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고미술상과 화랑이 모여 있는데다 한옥풍의 건물들이 밀집해 우리 한국문화와 서울의 전통생활상을 느끼고 싶어하는 외국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동은 전통을 자랑하는 고서점, 필방, 화랑, 공예품점 등의 문화업소들이 몇 년전부터 불황의 여파가 밀려들면서 현저히 줄고 대신 미관을 해치는 유흥업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계 음식점까지 들어서고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도로와 시설들은 무질서한 차량통행과 노점잡상인 등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정체성까지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역사문화자원을 관리 보호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계법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인사동 일대를 문화지구 제1호로 지정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에 따라 공포하게 되면 내년초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매는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인사동길에 전통문화거리의 모습으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지구 지정은 시장이 하고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는 관리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우리 구에서 현재의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에 걸맞게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이며 벌써부터 시행도 하기 전에 여러 이해관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시행계획을 세워 가장 걸림돌인 비문화업소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정비하고 문화업소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관련법 개정후 인사동 전통문화거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보존의 가치가 높고 조만간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 등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장시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명예직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3년 전 제3대 의회가 처음으로 개원되던 날 민의의 전당인이 자리에서 그때 가졌던 위대한 포부와 정열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안남은 임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폭넓은 수요와 다양한 요구가 표면화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하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성과와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이달 26일부터 개최하게 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면밀히 수렴하여 지난 1년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회기로써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련 세미나를 의원님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후 곧이어 있게 될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의 준비 못지 않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

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아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제설대책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한 임시회인 만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16회 종료 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9分 閉式)

○出席議員數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 健 所 長	李星世

